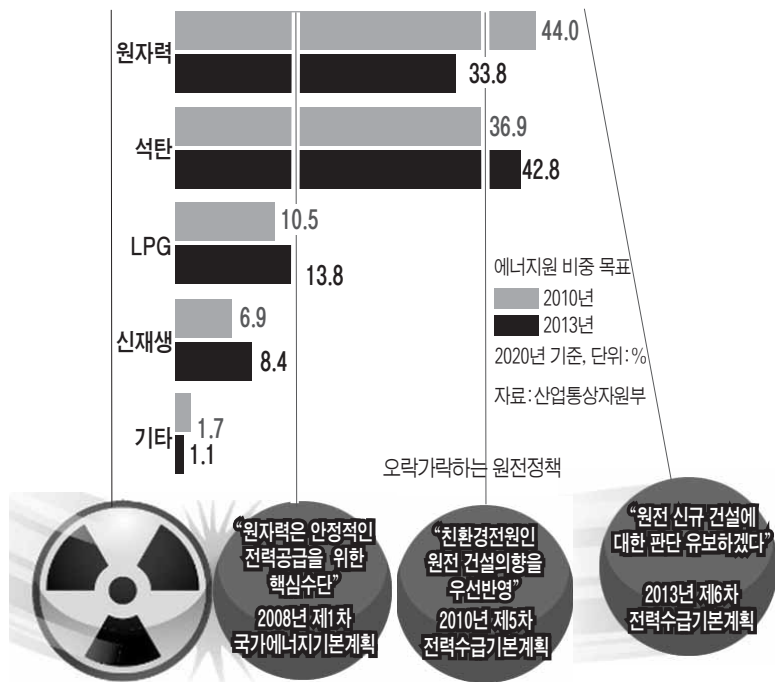


에너지 위기

탈핵·신재생에너지가 답이다

③ 원전 미래 대안이 될 수 없다

■ 에너지원별 정부 정책 흐름



신고리 3·4호기가 올해 안에 3호기 운영허가를 취득해 시운전에 돌입할 계획으로 공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가동체비를 하고 있다. 신고리 3·4호기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원자로의 동일 모델로 부품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됐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제공)

특하면 사고에 비리... 방사능 피해 우려 현실화 가능성

있던 고장과 비리의 운상이 되면서 원전은 미래를 위한 핵심에너지에서 이젠 이도 저도 못하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두고 원자력 마피아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방만한 경영 등 말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원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에너지 정책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예초 정부는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41%로 끌어 올리려고 했으나 한창 구성 단계인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이를 수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들 “원전 안전 갈수록 못 믿겠다”=30여년 동안 믿을직하고 저렴한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한국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의심이 일기 시작했고, 잦은 고장에 부품 납품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악화일로로 치닫게 된 것이다.

중폭되고 있는 원전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은 그동안 원전 반대를 주장했던 환경·탈핵단체들로서는 원전의 ‘숨은 위험’을 알리는 기폭제가 되기에 충분했다.

‘원전이 정말 안전하다’는 환상이 깨졌음을 알리고 방사능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여기에 다 주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전 제로화를 요구하는

정부 에너지정책, 특정 전력원 쏠리면 위기 상황때 대처 힘들어

2013년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선 “원전 신규 건설 판단 유보”

목소리까지 높이고 있다.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은 “한수원은 가장 안전한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의 안전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면서 국내 원전이 기로에 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원전 안정성 논란은 급기야 새 원전 부지 선정과 위조된 미검증 부품 원전 사용, 송변전시설까지 총체적으로 번지면서 정부-주민, 주민-주민간 갈등으로 이어져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실제 환경·탈핵단체를 중심으로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원전에 대한 밀그림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국가사무라는 이유를 내세워 원전 부지 결정과 원전 건설, 원전 운영 등 모든 과정이 철저히 배일 속에 가려지면서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 원전에 대한 출력증강(파업업레이트) 계획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빛(영광) 원전 1~2호기는 이미 출력증강(95만 kW→100만kW) 설비를 갖추고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들의 반대로 아직까지 출력증강을 미루고 있지만 언제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박상은 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 팀장은 “원전이 노후화되고 불량부품의 위험성이 상존한 상황에서 출력을 증강할 경우 자칫 큰 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이러한 계획도 백지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기 자초로 ‘제1 에너지원’ 위상 뿌리째 흔들려=사실 원전은 가동 당시부터 모두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전력과 에너지 대계를 위해 ‘필요악’으로 인정되며 가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원전의 총체적 난맥상으로 이러한 허상이 깨져 버린 것이다.

원자력의 발전단가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 ‘매우 싸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거세다. 그동안 한국 전력 등은 에너지원별 발전 판매단가를 원자력 39.61

원(단위: 원/kwh), 석탄 66.34, 유류 253.04, 수력 180.95, 신재생 118.66으로 홍보하며 원자력이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임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지금까지의 원자력 단가는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계산됐다고 주장한다. 우선 원자력 발전 후 발생하는 핵폐기물 처리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려면 고준위핵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해야하고 수십년간을 운영·관리해야 하는 데 이에 따른 건설비와 운영비, 관리비를 다 계산했느냐는 것이다.

또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처럼 예상되는 사고가 발생 때의 보상비·사고처리비 등 ‘보험’ 명목 액수도 정립해야 하는데 현재 한수원은 고작 원전당당 500 억원만을 적립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우리 정부가 방재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그린피스와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방사능 방재 계획 2013’ 보고서를 내고, 기존 반경 10km인 비상계획 구역을 최소 30km로 넓히고 5200억원의 터무니없는 사고 배상 한도액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에너지산업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전력 공급을 고려하면 원전 외 대안은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KDI의 한 관계자는 “수요 관리만 갖고는 전력난 대

처가 불가능하다. 결국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가격과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 등을 고려하면 당장 원전을 포기할 수는 없다”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원전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치권과 시민단체, 정부에서 합의 이끌어 내고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믹스(에너지기본계획 전원 구성)의 균형을 찾아 재설계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다행인 점은 시민단체는 물론 정부나 전문가그룹도 1차 에너지 기본계획보다는 원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전의 수용성이 약화한데다 대형 발전원이 고장 났을 때 전력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심각하다는 점을 경험했기 때문

이다. 전문가들은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정부가 지속 가능한 원전을 위한 보다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경제논리 또는 정치논리에 편향된 에너지계획은 결국 5년 안에 다시 휴지통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부산=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삼희 공인중개사

부동산 빠른매매

(~ 50억가능)

급매매상담

(건물,상가,아파트,주택,기타)

법인소유부동산

지분부동산매매

미준공건물매매

경매진행중인물건

금융상담

복잡한 권리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말소후 책임중개합니다.

부동산 매수자 상담환영

법률/금융상담 동구 불로동 삼희빌딩 3층
062)234-1199
010-8730-3340
신뢰할 안내자를 만나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태영부동산공인중개사

★매매★

- 영암 도포면 성신리(아산) 임대44,470㎡ 계획관리지역 (과수원,전 개간지역)매매가4억원
- 남구 방림동 순환도로점 지하1층 지상6층 대지344㎡ 건평1576㎡ 매매가1억1천(병원적합)
- 동구 용산동 도시철도공사 뒤편 임대 32.231㎡ 매매가 ㎡당 4천5백원
- 북구 오치동 먹자골목내 원룸촌 나대지 407㎡ 3억 2천 만원 (고기텔, 원룸신축적합)
- 화순읍 흥리 공인빌라 4층 132㎡ 매매가 1억5천만원
- 백운동 서강중 인근 2층상가주택 대지137㎡ 1층점포3 칸 2층주택 임대중 매매가1억7천만원
- 문흥지구 현대아파트 후문 맞은편 지상3층 상가주택 대지 249㎡ 건물474㎡ 1층점포3곳 임대 2.3층 주택4곳임대 (용8천 전1억2천만포함) 매매가13억7천만원

★임대★

- 동구 운림동 중심사 버스중점 아웃도어 매장 뒤편 2층 레스토랑 198㎡ 풀원비 보증금3천만원 월70만원 시비권있음
- 남구 봉선동 삼익사거리 인근 2층 노래방225㎡ 룸6개 (금) 현상임중 보2천만원 월1백70만원 시비권있음
- 북구 오치동 먹자골목 입구 지하 노래하는 호프 7080 현상임중 132㎡ 보증금1천만원 월80만원 시비권있음
- 서구 백전동 순환도로 서광주역 진입 도로점 대지1270㎡ 건평 198㎡ 보5천만원 월200만원 시비권없음 (식당적합, 모던업종가)

부동산 매도,매수 물건 성실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법원경매 물건 상담전문

상담 번호 010-6636-0114
010-3627-3896

영천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임대·급매매

웨딩홀 상설뷔페

임대 2,824㎡ (854평)
주차 500대
보2억 / 월1,500만
매매가15억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임대 2,479㎡ (750평)
주차 500대
보2억/월1,200만
매매가10억

급매인수 11억
건물5,700㎡ (1,740평)
보증금4억 /월2,700만
감정가 78억
급매가 25억
융자액 14억

☎010-3605-7814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동원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전문)

상가건물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7층) 보5억4천,월3500만 매46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3층) 보3억원, 월1200만원 매24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10층) 보25억, 월 6500만원 매130억원
- 광산구 수원지구(5층) 보2억천, 월1390만 매27억원
- 광산구 신항동(5층) 보2억,월1040만 매19억원
- 금호동 계획도로점 자연녹지 3,400㎡ 매32억원 (병원, 차고지, 대형가든, 정려 예식장, 투지최적)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960㎡ 매 36억원(병원,사옥)
- 치평동 광송간도로 395㎡ 매14억원(병원,사옥,전시장)
- 쌍촌동 운천역부근 상업지 845㎡ 매가25억 (사옥,전시장병원,도시형)
- 상가건물, 나대지 급구·

010-3753-0033

공장매매

장흥군 장평면 장평농공단지내

【 토 지 】
4,864㎡
【 공 장 】
375㎡
【 사무동 】
161㎡
기계장치 포함

【 용 도 】
특수시멘트 (몰탈 등)제조공장

매매가액 3억원

조성중인 장흥농공단지 토지분양가 평당 239천원

017-602-1948